

# 국무총리배 아마바둑선수권대회 성료

## 김희수 선수 3위 달성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전북 부안 출포 갯벌생태공원에서 개최된 '제11회 국무총리배 아마바둑선수권대회'가 김희수 선수의 3위 달성이라는 좋은 결과를 남기고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대한바둑협회가 주최·주관하고 전라북도, 부안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기원, 아시아바둑연맹이 후원한 이번 대회는 전 세계 57개국의 아마바둑 국가대표선수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6라운드 방식으로 진행됐다.

우리나라는 국무총리배 세계아마바둑대회에서 7회 우승을 차지해 최다 우승국가로 이름을 올리고 있어 우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태였다.

대한민국 대표로 참석한 김희수 선수는 빼어난 기량으로 5라운드까지 승승장구했지만 중국의 양문둥에게 아쉽게 패하며 결승 진출이 좌절됐다.

하지만 6라운드 3.4위 결승전에서 침착하게 승리해 중국의 양문둥과 대만의 라이유청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한편, 전라북도는 한국바둑의 개척자이자 초석을 닦은 조남철 국수와 바둑인자로 오랜 기간 명성을 떨친 이창호 국수를 배출한 고장으로서 새로운 바둑 유망주 발굴을 위해 매년 다양한 바둑 대회를 열고 있다. 또한 바둑의 고장 바둑의 메카로



대한민국 대표로 참석한 김희수 선수는 빼어난 기량으로 5라운드까지 승승장구 했지만 중국의 양문둥에게 아쉽게 패하며 결승 진출이 좌절됐다. 하지만 6라운드 3.4위 결승전에서 침착하게 승리해 중국의 양문둥과 대만의 라이유청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서 명성과 자존심을 지키고 바둑의 우수 인재 배출을 위해 국무총리배, 조남철국수배, 도지사배 등 바둑대회에 매년 도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폐막식에 참석한 이형규 부지사는 "세기의 바둑 대결인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에서 바둑의 붐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전북바둑협회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우수한 바둑영재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대회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민근기자



## 전북생활체육지도자 역량강화 연수

전라북도체육회(회장 송하진)가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한 '2016 전라북도생활체육지도자 연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운동재활테이핑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진행된 이번 연수에 140여명의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전원이 과정을 수료했다.

윤리교육과 운동재활 마사지 교육, 응급처치 교육, 스포츠 인권교육 등 다양한 교육으로 참가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연수에 참석한 부안군체육회 송다현 지도자는 "이번 연수를 통해 지도 현장에서 동호인에게 재빨리나 마사지 같은 전문적인 운동 생리학 내용을 자신감 있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 기쁘다"며 참석 소감을 전했다.

/김민근기자

## 전북체육회, 제1차 여성체육위원회 개최

전라북도체육회(회장 송하진)가 지난 8일 전북체육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2016 제1차 여성체육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 선출 및 위촉장 수여식 제7회 전국체육대회, 동호인리그왕중왕전, 에어로비체조경연대회 행사계획 등 앞으로 개최될 각종 주요 행사 계획 등을 보고 받았다.

신설된 여성체육위원회는 여성체육의 육성지도 및 보급과 여성체육행사 시설 개발 등 각종 여성체육 육성에 필요한 전반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4년의 임기기간 동안 여성체육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에는 전북체육회의 조소자 이사가 선출됐다.

조소자 위원장은 "여성체육 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분야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김민근기자

# '안방 불패' 전북현대, 상하이 상강 8강 2차전

## 원정다득점 원칙 따라 반드시 승리해야

홈에서 92.3%라는 가공할 만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이 내일 오후7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2016 AFC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 경기를 펼친다.

두 팀은 지난달 23일 상하이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1차전 경기에서 치열한 접전 끝에 0대0으로 비긴 바 있다.

전북은 1차전 원정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하지 못한 탓에 1대1이나 2대2 등 득점이 난 상태에서 비기게 되면 원정다득점 원칙에 따라 탈락을 하게 돼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입장이다.

하지만 전북은 지난 주말에 펼쳐진 전남전에서 주전을 대거 빼며 1군 선수들의 체력을 비축해둔 점과 김보경, 이재성, 레오나르도, 로페즈 등 미드필더와 날개 지원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안방인 전주월드컵경기

장에서 홈팬들의 열화와 같은 응원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 등에서 비했을 때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스벤 에릭손이 이끄는 상하이 상강은 주력 선수인 다리오 콘가가 부상으로 인해 시즌 아웃됐고 브라질 공격수 헐크 역시 부상후유증으로 재 컨디션을 찾지 못하고 있다.

1차전에서 슈팅수 8:7 유효슈팅수 3:3 점유율 53:47로 치열한 박빙의 경기를 펼친 양 팀은 치열한 접전 상황에서 집중력을 발휘한 팀이 승리를 거둘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K리그 3연패와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위해 순항하고 있는 전북이 과연 중국의 황사머니를 이겨내고 4강에 안착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민근 기자



전북현대모터스와 상하이 상강 2016 AFC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 경기가 내일 오후7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펼쳐진다.

## 서울드라마어워즈, 영국 '더 나이트 매니저' 대상

영국의 '더 나이트 매니저(The Night Manager)'가 최근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열린 '2016 서울드라마어워즈(2016 SDA)'의 대상을 차지했다.

전직 군인 출신으로 호텔에서 일하는 '조나단 파인'(톰 히들스턴)이 우연히 비밀문서를 얻고 그 내용을 알게 되면서 일어나는 일을 다룬 첩보 드라마다. 연출상 역시 '더 나이트 매니저'의 수잔 비에르에게 돌아갔다.

올해로 11회를 맞는 서울드라마어워즈는 사단법인 서울드라마어워즈 조직위원회와 한국방송협회가 주최하는 드라마 축제다. 올해는 전 세계 51개 국가에서 285편의 작품이 접수됐다. 국가, 작품 수 모두 역대 최다다.

2016년 최고의 히트작으로 꼽히는 KBS 2TV '태양의 후예'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태양의 후예'는 한류드라마최우수작 품상, 한류드라마주제가상, 한류드라마남자연기상 등으로 3관왕을 거머쥐었다.

OST 유 아 마이 에브리씽(You are my everything)으로 한류드라마주제가상을 받은 가수 거미는 "앞으로도 배우의 감정 전달에 도움이 되는 노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감동받을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태권도원  
THE GREAT CHANGE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성로 1482 / 063) 320-0114